



에스더의 선물, “이름 새긴 볼펜과 장학금”

- 회계사가 된 자랑스런 코피노 선배 -

메신저 장학생 출신으로 제1호 졸업생이 된 에스더는 활짝 웃는 그 미소만큼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에스더는 필리핀 앙겔레스의 지역의 명문대학교인 홀리앙겔대학교(HOLY ANGEL UNIVERSITY) 회계학과를 작년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그 어렵다는 회계사 자격증 시험도 단번에 통과해낸 후, 현재는 현지의 한 회사에서 회계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여느 코피노 가정들처럼 비록 집안 형편은 넉넉치 못했지만 신앙 안에서 늘 밝게 자라며, 무엇보다 항상 도전하고 노력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2014년부터 메신저의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한국의 한후원자분(남윤석 교수)으로부터 5년 내내 학비를 지원받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학교에서는 착실한 학생이자 교회에서는 신실한 리더, 그리고 메신저 센터에서는 언제나 믿음직한 선배로서 든든한 언니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센터에 나와 늘 웃는 얼굴로 봉사했고, 사랑으로 동생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었습니다.

지난 3월, 에스더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300명이 넘는 아이들 앞에서 청년대표리더로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과 주어진 상황에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은혜, 그리고 메신저와 한국의 여러 도움의 손길들 등 자신의 삶의 간증을 담대하게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현지에 있는 사역자분으로부터 감동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월급의 일부를 코피노 동생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장학금과 함께 그동안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현지 선교사님의 이름을 새긴 볼펜을 선물한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스물셋, 어린 나이에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에스더의 꿈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는 회계사이지만 앞으로 3년 뒤에는 회계전문 국제변호사로, 그리고 언젠가는 목회자로 강단에 서고 싶다는 그녀의 꿈. 그곳이 어디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동하겠다는 그의 당찬 포부를 마지막으로 전하며, 그 길에 메신저가 늘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앙겔레스 센터〉



작년 성탄파티(12월)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행사에는 코피노 아이들 및 그 가족, 현지 스태프 등 200여명이 모였는데, 센터에는 전부 수용이 어려워 처음으로 근처 한인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무한 뷔페에서 모처럼 모두가 함께 모여 배불리 먹었고, 땀땀 가정들이 연합하여 노래와 댄스 등 장기자랑을 선보이며 서로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월 말(3/30)에는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총 10명의 졸업생을 축하하는 파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가 특별했던 건 메신저의 1회 졸업생으로, 대학 졸업 후 회계사로 일하고 있는 에스더가 자원하여 음식재료 비용을 지원하고, 에스더 엄마의 섬김으로 전체 준비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우리가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앞으로는 한국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동생들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을 갖자”며 그 소감을 전했는데, 참석한 모두가 감사와 희망의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졸업파티에는 고마운 손님도 찾아주셨습니다. 벌써 몇 해 동안 현지에서 매달 쌀100kg씩을 지원해주신 후원자분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아이들에게 포근한 고급 쿠션 100개를 선물해주셨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아이들은 무척이나 기뻐했는데, 앞으로 평안한 잠과 함께, 좋은 꿈들도 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세부 센터〉



세부에는 작년 11월부터 새 사역자분(김정석, 유희선 선교사)이 오시며 더욱 활발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연중 가장 큰 행사인 성탄행사(12/22)는 감사예배 및 파티의 시간으로 이뤄졌습니다. 코피노 아이들과 가족 80여명이 모여 예배와 게임, 식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가정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함께 나누며 서로 더욱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일(월 - 금) 공부방 시간외에 주말에 야심차게 시작된 스페셜 액티비티는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매달 한 번씩 진행됩니다. 11월에는 근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12월과 1월에는 센터에서 함께 먹고 자며, 영화감상을 하고 타임캡슐을 만드는 등, 새로운 방식으로 1박2일 캠프(Sleep over camp)를 보냈습니다. 2월에는 근처 수영장을 방문해 시원한 시간을 보냈고, 기타, 건반, 드럼을 배우는 음악교실이 시작되었으며, 태권도 수업도 준비 중입니다. 튜토리얼 시간에는 한국과 관련된 이색 이벤트들이 진행됐는데, 독도캠페인 필통 나눔 행사, 3.1절 태극기그리기 등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번 한국본부를 통해 아이들에게 장난감 및 신발 등을 후원해주셨던 허요한 학장님(아세아선교신학교)께서 센터에 방문(3/11)하셔서 아이들을 만나 선물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중 루츠 지역에 살고 있는 신애와 요한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셨는데, 시력에 문제가 있는 신애를 위해서는 한국에 돌아가신 후에도 여러 약들을 추가로 보내주셨습니다.



메신저 사역보고 〈본부〉



작년 11월에는 두 곳의 단체와 업무협약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 광화문(함동근 총회장)와의 협약에서는 필리핀 한인 다문화아동(코피노)들을 위한 교육 및 후원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며, 국민일보(사)여성리더스포럼(송순복 회장)과의 협약을 통해서서는 미혼모들을 위한 취업과 교육 등의 후원을 우선 지원하는 것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상호 활발한 교류 및 지원이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멤버스데이 행사(11/6)를 잘 마친 후에는 그동안 사무실에 있던 후원품들을 정리해 사역지로 보냈습니다. 성탄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뿔 듯이 기뻐했다고 하니 이만한 보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3월까지의 국세청 및 외교부에 2018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비영리법인 회계보고를 하였고, 자원봉사 인증기관으로써 VMS 인증요원 보수교육도 수료하였습니다.



매년 감사하게도 메신저 사무실은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시는 후원품들로 늘 가득합니다. (사)바이블25에서는 도서관에 놓일 한영해설성경(NIV) 20권을, 오진혁 대표님(밀크앤허니)께서는 예쁜 친환경 아동복(고드레빵) 600여벌을 후원해주셨으며, 허요한 학장님(아세아선교신학교)께서는 아이들을 위한 맛있는 사랑과 신발, 약품 등을 후원해주셔서 배송을 준비 중입니다.



세부 지호 할머니를 위한 기도

지호(자이로)의 할머니인 ‘아미’는 어려운 형편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메신저 세부센터에서 청소 헬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 손자를 돌보며, 오전 시간에는 바쁘게 일도 해야 하지만 늘 웃는 얼굴로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근 건강검진 후 갑상선암 2기로 흑이 발견되어 근심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갑상선암 수술이 비교적 쉽다는 인식이 있지만 필리핀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연세가 있어 수술시간도 6시간 이상으로 잡고 있으며, 현재 심장비대증까지 겹쳐 수술을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기에 걱정이 더합니다. 게다가 이전 검사비용은 현지 선교사님께서 사비로 진행하셨으나 수술비용과 수술 후 약물 치료비용은 아직 확보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수술을 자원해 줄 의사를 만나 국립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낙후된 시설에 대한 현지인들의 우려 때문인지 하루 전 수술을 포기했습니다. 지호 할머니를 위한 치료의 방법이 찾아지도록, 그리고 그 재정마련을 위해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엘리자베스의 그동안 꿈꿔보지 못했던 행복

양겔레스에 사는 엘리자베스(13세)에게는 얼마 전 꿈만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클락에 있는 ‘세인트폴 국제학교’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3월)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평소 말이 없고 쑥스러움이 많은 아이로, 엄마와 코피노 오빠 2명과 함께 네 식구가 비좁은 한 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7학년인 이 아이는 가난한 가정환경에 지역 사립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 꿈꾸기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이 미국계 기숙학교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지원을 받으며 다니게 될 학생으로 추천받아 선정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큰 행운이 찾아온 것에 아이는 몹시 불안해하며 얼마만큼의 성적을 내야 자신이 자격이 되는 것인지 걱정하며 거듭 물어보았는데, 현지 학교 이사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들은 말씀에 그제서야 마음편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니.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란다. 넌 그저 여기서 자유롭게 각국의 친구들을 사귀며,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면 된단다.” 엘리자베스의 삶에 선물 받은 엄청난 행운, 그리고 행복. 진정한 후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난 가을,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이들과 그 보호자 일행 17명이 4박 5일(11/3~11/7)의 일정으로 아빠의 나라인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합창단 및 태권도 시범단으로 방문한 이들은 색색의 낙엽으로 아름답게 물든 가을 한국의 정취를 바라보며 감탄했고, 쌀쌀한 날씨에 대한 적응에서부터 조금씩 다른 두 나라의 문화에 적응해갔습니다. 고운 한복을 입고 서울의 중심인 경복궁과 삼청동을 돌아다니며 무척이나 설레어했고, 저녁에는 숙소 근처인 명동에 나가 길거리 음식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다음날(11/4)에는 새에덴교회와 잠실교회를 방문해 어설픈 한국어지만 또박또박 진심을 다해 찬양을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가장 신나했던 건 다음날(11/5) 아침부터 종일 놀이공원을 방문한 일정이었습니다. 마음껏 놀이기구를 타고, 아이스크림을 누비며 하루 종일 깔깔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한국에서 제일 높은 월드타워 전망대에 올라가 금빛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드라마 열풍 때문인지 의외로 아이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곳은,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인, 남산타워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산책 겸 걸어서 올라갔다가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와서는 오후에 있었던 멤버스테이(11/6)에 참석했습니다. 뜨거운 감사의 마음으로 한국의 후원자들을 만난 후, 마지막 날(11/7)인 다음날에는 인천으로 넘어가 한국뉴욕주립대에서 학교투어를 하고, 송도 유람선을 탄 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오래도록 가슴에 기억되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행사 후기 II

“애국가와 함께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넘쳐흘렀던 - 제5회 메신저 멤버스데이”



‘함께,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로 벌써 5회째를 맞은 메신저 멤버스데이는 확실히 특별했습니다. 먼저 17명이라는 지금껏 최다 인원이 필리핀에서 초청되어 왔고, 설립 10년을 맞아 그동안 잘 성장한 메신저의 후원아동들이 직접 꾸민 무대로 행사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초청자들을 위한 만찬으로 시작된 행사는 간단한 예배와 이사장 인사, 감사패 증정 등의 순서로 이어졌고, 가수 자두의 사회로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핀 세부와 앙겔레스, 메신저 각 지부의 센터장인 선교사들의 소개와 사역보고 영상이 흐른 후에는, CCM가수 김브라이언과 웅기장이 등의 축하 공연이 있었고, 그 후, 마침내 기다렸던 우리 아이들이 무대로 등장했습니다. 우렁찬 기합과 함께 보여준 태권도 시범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보여주었고, 유창하지 못해도 진심을 꼭꼭 담아 부른 한국어 노래들은 그 어떤 호소력 있는 가수의 목소리보다 아름답고 짙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지막에 참석자 전원이 함께 부른 애국가였는데, 서로 소통하며 ‘함께’의 의미를 되새기는 행복한 시간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이뤄질 수 있었는데, 장소와 식사, 음향 및 시설 전반을 지원해주신 열림교회(이인선 담임목사)와, 아이들에게 튼튼한 신발 및 방한의류를 후원해주신 경주 모다아울렛 S-market(이태경대표), (주)에플라인드(김윤수대표), (사)아시아미션(정재철이사장), 그리고 이들이 방문 중 모든 일정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입장권 등을 후원해주신 L.point(강승하대표), 코마린(정종택대표), 송도몬스터VR테마파크(박성준대표) 등 수많은 분들의 후원이 있었기에 아이들이 한국에서 즐거운 추억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함께 기도해주시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공지사항

1. 메신저 새홍보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메신저 홈페이지(www.messengerin.com) 및 유튜브 검색을 통해 확인해주시고 주변분들에게도 많은 안내 부탁드립니다.
2. 내년 초에 발급되는 2019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이나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최초로 신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모아주세요

1. 각 지부(앙겔레스, 세부) 사역자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김종란, 김정석, 유희선 선교사님)
2. 세부센터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을 위한 셔틀 봉고차량 구입(약1,500만원)을 위해
3. 각 사역지의 센터 장소가 안정적으로 구해져 사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4. 메신저 사역에 필요한 재정들이 넉넉히 채워질 수 있도록

후원계좌

1. 신한은행 100-025-948669 / 예금주: 사단법인 메신저인터내셔널
2. 외환은행 630-272206-458 / 예금주: (사단)메신저인터내셔널

"이 소식지는 국민일보목회자포럼(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